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심의를 위한 DB 시스템 개선 방안 Improving Way of DB System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Broadcasting Delivery

박천일*, 주정민**, 이영주***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Chun Il Park(park1001@sm.ac.kr)*, Chungmin Joo(truejoo77@daum.net)**,
Yeong Ju Lee(roselee@seoultech.ac.kr)***

요약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의 DB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 콘텐츠 심의기관의 DB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방송 심의 DB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타 콘텐츠 심의 DB의 경우 정보입력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DB 활용 측면에서도 타 기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방송심의 DB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됨으로써 심의대상자인 방송사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들이 심의결과를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방송콘텐츠 | 내용심의 | DB 시스템 |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investigate the way of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consistent review results by utilizing DB system of broadcasting content, which has been operated b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current problems of DB system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review system of other contents regulating organizations to seek better alternatives. The results show that related information are recorded in review DB of other organizations in detail, so that committee members can utilize DB system in making consistent and objective judgment. In addition, other contents regulating organizations open the review results to the public and enhance the accessibility, so that people can make use of the DB.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view DB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for broadcasters and contents productions to accept and consent the review results.

■ keyword : | Broadcasting Content | Content Review | DB System |

1. 서론

1.1 문제제기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 33조(심의규정)에 근거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준수하는지를 사후 심

의한다. 심의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 요원과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에 근거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와 같은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법정 제재가 1,165건, 권고 등 행정지도 17,362건 등 총 2,901건의 제재를 받았다[1].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송사와 방송제작자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방송심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심의절차에 대해 ‘인상비평에 근거한 제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 수위의 차이 발생’, ‘심의기준의 비밀관적 적용 및 해석’, 그리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의결과의 극명한 차이’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2]. 이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방송학자들은 방송심의에서 매체별·채널별 기준 확립 및 예측 가능한 심의를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심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가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유사한 기존 사례의 경우 매체별로 최종 결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제재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한 분석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심의 자료 및 심의 관련 전문정보를 축

적, 분류하여 이를 심의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는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6년부터 방송심의 업무를 위해 DB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과정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심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방송관련 DB 연구는 방송 산업 자료의 통합적 DB 구축[15],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 구축[19]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 방송심의 DB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공학적인 측면에서 방송통신 심의 DB 구축에 필요한 관련 기술과 요소기술의 동향 및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단계별 프로세스를 전산화·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16]. 그러나 DB가 구축된 이후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의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심의 DB 시스템의 객관적 분석 이외에 심의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DB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무 담당자와 심의위원들이 DB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심의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약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를 맡고 있는 실무 담당자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방송심의 과정에서 DB를 어떻게 활용하여 심의행정 절차 및 방법을 체계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수평적 규제 체계가 도입되고 콘텐츠 심의를 통합하게 되는 시점을 대비하여 장르는 다르지만 DB 구축이 앞서고 있는 타 콘텐츠 심의 기관의 DB 시스템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방송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미래에도 연구결과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타 콘텐츠심의기관에서는 DB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및 활용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방송심의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심의 DB 시스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1.3 연구방법

방송심의 DB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른 유사 심의DB와 비교하고 심의 DB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비교대상은 현재 내용규제 업무의 처리를 위해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DB이다. 이들 기관은 콘텐츠 내용규제기관으로 방송콘텐츠의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내용규제 업무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어떻게 집적하고 이들 DB를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업무를 체계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DB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방송 심의 담당자 및 심의 DB 구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즉 DB의 입력과 활용에 있어 기능적, 내용적으로 보완할 점을 적시함으로써 DB 시스템의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고찰

2.1 방송심의절차의 일관성과 체계성의 미비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심의 제도는 심의규정과 심의내용의 모호성,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의 부당성, 보도프로그램과 선거방송 규제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포괄심의의 비효율성 및 비밀관성 등에 있어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3].

방송심의는 모니터링 요원의 1차 심의가 이루어진 이후 사무국 직원의 검토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심의원이나 심의담당 직원이 어떠한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결정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방송심의 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한편, 심의의 진행에서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일련의 절차와 심의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심의개시 전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만을 수집하여 심의여부를 결정해야만 안건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이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5]. 또한 심의위원의 임기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방송심에 관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심의위원의 임기가 짧아 그들의 심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6].

특히 방송심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피 규제 대상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심의규정의 적용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의 적용은 위원들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뤄지며, 위원간의 의견이 상충되면 최종적으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7].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방송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심의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과정에서 기존 유사 사례를 참조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방송심의 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방송심의규정이 대부분 윤리강령 수준이어서 판단기준이 모호한 원인이 있다. 심의규정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현저하게’, ‘지나치게’, ‘신중하게’라는 표현이 많아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8]. 이에 방송심의가 보다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판단보다는 체계적이고 축적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규범형성이 필요하다[9][10]. 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일방향적인 방송과 수용자의 능동적 선택에 의한 양방향서비스인지에 따라 세분화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1].

2.2 방송심의 체계화와 DB 활용

일반적으로 DB는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상에 집적하

여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의 DB화는 관련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많은 자료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거나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12], DB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본자료 및 가공자료 등의 집적화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18][19].

공공기관들도 DB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업무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고 있다. 다양한 업무를 DB화하여 이를 외부에서 검색하도록 하거나 내부에서 업무처리과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행정 DB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가 효율적으로 통합 및 분류되어야 하는 체계성, 관련 자료 및 내용의 신뢰성 및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지의 충실성, 정보와 자료 이용이 쉽고 편리해야 하는 접근성,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13].

특히 정부의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DB 구축은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자들의 편리한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접근, 관련 DB나 인터넷사이트들과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또한 규제정책의 투명성 확보, 규제관리 업무의 효율화, 이용자와 대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14][15].

방송통신 내용심의도 보다 일관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의정보 DB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소프트웨어공학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련 자료의 생성, 심의업무의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심의 관련 자료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접근권 강화, 심의 관련 정보의 검색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된 적이 있다[16].

2.3 방송심의 DB 시스템 현황

방송콘텐츠에 대한 심의업무는 민원 또는 심의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작된다. 민원이 제기된 콘텐츠나 심의원이 검토한 부분 중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예비심사 단계를 거친 후에는 특별위원회에 상정한다. 특별위 회의가 이루어

진 후에는 회의내용, 결정사항, 회의록을 만들고,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특별위원회보다 훨씬 방대하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로 상정되며, 전체회의를 마치면 회의 결과를 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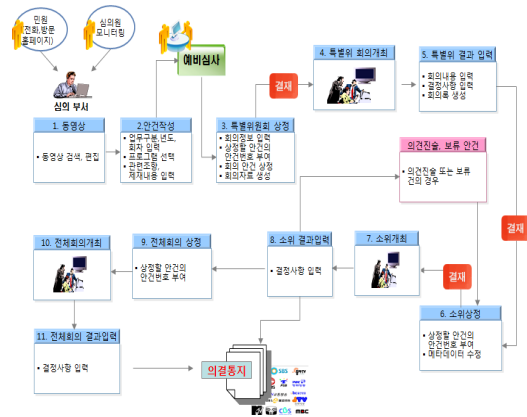


그림 1. 방송심의 업무 흐름도

현재 방송심의 DB 시스템은 웹서버와 DB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웹서버는 SUN V440 Unix서버에 운영체제는 Solaris9이고 DB서버는 HP DL380 NT이며 운영체제는 Win2003 Server이다. DB는 Oracle 10g를 사용한다. DB서버는 방송 스케줄, 인코더 채널정보, 인코더 녹화상태 DB 등과 같이 사용하는데, 심의에 필요할 경우 디지털 녹화 시스템에 동영상상을 요청하면 심의 DB로 연결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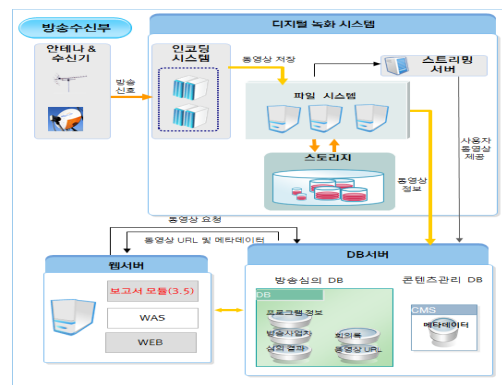


그림 2. 방송콘텐츠심의 DB 시스템 구성

DB 시스템의 각 메뉴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메뉴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되는데, 방송영상검색, 심의안건관리, 특별위 회의, 소위/전체 회의, 심의통계, 청소년유해매체, 심의물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특별위 회의와 소위/전체회의 메뉴에서는 회의 상정 및 회의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한다. 심의통계 메뉴는 제재별, 제제사유별, 조건별 통계를 볼 수 있으며, 방송영상검색 메뉴는 방송 스케줄 및 녹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방송심의 DB시스템 화면 구성

2.4 방송심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현행 방송심의 DB 시스템의 문제점은 방송심의 관련 DB 입력 방식과 업무에서 DB 활용상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분된다.

DB 입력방식의 한계는 먼저 DB를 입력하는 데 있어 입력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실제 심의업무 진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별도로 회의 자료를 만드는 이중 작업을 하고 있다. 둘째, 방송심의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한 사례나 동일 규정의 위반 사례와 일관된 심의결과가 내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키워드’ 혹은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DB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시스템은 핵심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셋째, 한 사안에 대해 각 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심의 결과가 내려지고 있는지 심의결과의 히스토리를 알 수 없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측면

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복잡하여 이용자가 지각하는 사용 용이성(usability)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력 방식이 난해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방송심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기능	내용
DB 구축	비가 복잡하여 사용 용이성이 낮음 난해한 입력 방식 검색엔진이 없음	입력하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음 DB 자료와 회의 자료의 불일치 키워드 입력장치의 부족 심의절차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어려움
DB 활용	DB 입력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함 DB 서버가 방송사 서버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음 DB에서 키워드로 기사 검색이나 학술 자료 검색이 안됨 위반사례를 통계적으로 추출할 수 없음

그러나 방송심의 DB 시스템의 DB 활용률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심의업무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DB를 입력하더라도 DB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심의 회의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와 현행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DB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심의 DB 검색기능이 단순하여 실제 심의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결과물을 추출할 수 없다. 넷째, 방송심의 업무가 끝난 후 필요한 통계 등을 추출하기 어려운 DB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관련 기사 검색, 관련 학술 자료 검색이 현행 시스템에서 구현이 되지 않아 별도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영상의 경우 방송사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 콘텐츠 아카이브를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III. 연구 결과

3.1 타 콘텐츠심의기관들의 DB 입력 시스템

현재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심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신청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DB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17].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자는 적합한 게임 유형을 선택한 후 포맷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포맷에 없는 부분은 추가로 작성한다. 방송심의 DB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입력내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었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 게임물의 등급신청 시 입력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그 차이는 내용정보기술서 작성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게임물 내용이 폭력물, 약물, 범죄,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동영상 편집물 시간정보 등의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동영상과 함께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게임 내용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표 2.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보 입력내용

등급분류 신청	신청 카테고리	입력정보
일반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 시험용게임물	신규접수 내용수정신고 등급분류이의신청 소명신청 심의결과조회	신청자 개인/법인정보 신청게임정보 ¹ 게임물내용정보 ² 첨부문서업로드 ³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DB에 정보입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정적 표현의 경우 ‘가벼운 노출’, ‘가슴 및 둔부 등 간접적이고 제한된 노출’, ‘성행위 암시 및 성기 등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선정적 언어 표현’, ‘성을 연상시키는 영상 및 음향 표현’, ‘성행위 표현,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근친상간, 혼음 등)’ 가운데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선정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폭력성의 경우에도 크게 폭력적 표현과 선혈 효과로 구분하

- 1 정식명칭, 원제 명, 이전등급취득여부, 해외에서 취득한 등급, 장르, 플랫폼과 접속방식, 이용가능제정, 과금 정책, 유통방식, 개발상황 등을 입력.
- 2 선정성, 폭력물, 약물, 범죄,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동영상 편집물 시간정보 등을 입력
- 3 게임제작업자등록증, 게임 배급업자 등록증 문서, 초상권 라이선스 관련 서류, 사용설명서

고, 폭력적 표현은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표현’, ‘외계인 및 좀비 등 인간 캐릭터와 유사한 대상에 대한 폭력’, ‘인간류 캐릭터를 제외한 생물/생물체에 대한 폭력’, ‘건물, 차량, 비행기 등 운송 수단 등에 대한 폭력’, ‘비적대적인 대상에 대한 폭력’ 가운데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혈 효과는 ‘그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그 표현이 과도한 경우’, ‘그 표현이 만화적이거나 환타지적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혈의 색상 등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약물, 범죄,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등 다른 항목들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DB 입력단계에서 주요 규정의 세부 항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입하는 이유는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심의 절차를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선정성, 폭력성 등과 같이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막연하고 불확정한 개념들을 보다 분명하게 분류하여 실제 심의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게임물 내용정보 입력 화면(선정성)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 비디오, 공연 등 총 3가지 영상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한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신청은 홈페이지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DB 입력 방식은 홈페이지에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급분류절차는 영등위에서 신청사에 등급분류 예정일을 통보하고, 소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한다.

콘텐츠의 저작권 여부를 판단해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저작자들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DB 시스템에 이용해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저작물에 대한 정보, 복제물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물 정보는 저작물의 제호, 종류, 내용, 간행물 여부, 간행물 횟수, 창작 연월일, 공표연월일, 공표국가 등을 입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의 경우 저작권등록을 제외한 분쟁조정(조정, 알선, 중재), 법정허락, 기증, 감정, SW임치, 성능평가, SW관리체계컨설팅, OS S라이선스 검사 등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작권 유형(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영상 등)을 선택하고,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권재산권 제한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담주제를 검색하여 찾은 뒤 주제를 클릭하면 상담화면을 볼 수 있다. 상담은 소수의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하면 그에 따른 자동 상담 내용을 볼 수 있다.

3.2 타 콘텐츠심시기관의 DB 활용 시스템

콘텐츠 내용심의 관련 기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축한 DB를 업무 진행 및 처리과정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DB의 조회, 검색 등을 체계화하여 업무를 조직화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DB의 내용 조회를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게임물 찾기’에 가면 카테고리별4로 누구나도 게임 구분, 플랫폼, 결정등급, 분류번호, 게임 명, 상호 명, 등급분류 일자 등 총 7가지 다양한 키워드로 분류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검색 시 게임명, 상호명, 등급분류일자, 등급분류번호,

4 ‘게임물 찾기’ 카테고리는 ① 등급분류결정 확인, ② 이전등급분류 취소조회, ③ 내용수정신고 결과조회, ④ 시험용 게임물 신청결과 조회, ⑤ 관련조회 등이다.

결정등급, 취소여부, 등급결정일, 등급결정내용, 사용설명서, 등급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그림 5]와 같이 게임물의 등급결정내용을 클릭하면 등급 결정 사유 및 관련 규정 그리고 내용정보표시사항을 알 수 있으며, 등급이력을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가 거쳐 온 등급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게임물등급 심의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된다. 특정 기간 중 게임물 등급 심의를 받은 접수현황, 등급분류 결정현황, 내용수정현황, 시험용신고현황이 제공된다.



그림 5.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확인 화면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등급분류 신청이 완료된 건들의 등급 분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영화, 국외 영화, 광고영화, 예고편, 공연 등을 입력할 경우 영상물의 한글제명, 신청사, 등급추천일자, 결정된 등급, 등급추천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등급자료통계를 볼 수 있는데 영상물 분류(영화, 비디오, 광고, 공연)에 따른 결정 등급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저작권관리번호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입력된 저작물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저작물과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다루는 업무는 법적 분쟁과 같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온라인 서비스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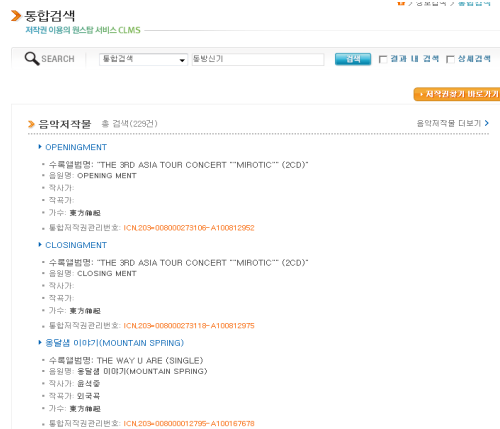


그림 6.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통합검색 화면

3.3 방송심의 DB 시스템 개선 방안

타 콘텐츠심의기관 사례 및 심의위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DB 시스템은 데이터 입력과 활용 단계에서 기능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심의 결과의 히스토리 관리, DB 서버 분리, 검색엔진 및 서버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DB 활용 측면에서는 검색 기능 강화, DB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회의실 모니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태그 기능을 추가하고, 키워드 및 태그로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방송사, 프로그래밍, 키워드, 심의규정, 제재 조치 등의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검색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하거나, 다양한 키워드로 동시에 검색하는 등 카테고리를 다양화하여 검색 결과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 사례 검색 시 안전내용 뿐만 아니라 동영상상을 같이 볼 수 있게 구성하고, 키 프레임(캡처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여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 DB에는 방송사, 프로그램, 시간, 핵심 키워드 등의 심의 내용과 연관된 사

실관련 DB만 포함되는데, 방송심의규정, 심의의결 내용, 권고문, 의견 제시문 및 제재 조치 등의 내용도 입력되어야 DB 시스템이 보다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같이 공정성, 선정성과 같은 방송심의 규정의 불확정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각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세분화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심의과정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의 위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일관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DB에서 기사 검색이나 관련 학술 자료 검색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풀 텍스트(full-text)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심의결정에 요구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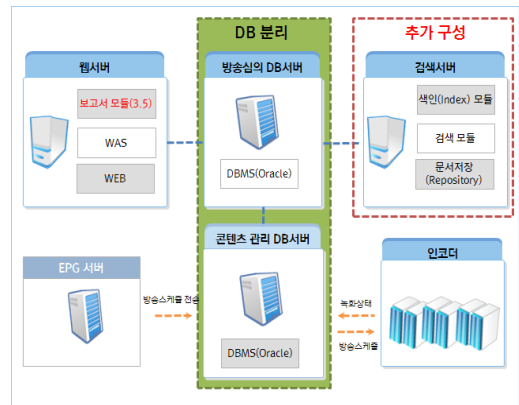


그림 7. 방송심의DB 시스템 개선 방안

심의업무 담당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입력한 후에 실제 심의과정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 시스템을 개선해야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당자들이 회의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나 유사 사례에 해당하는 방송 동영상 검색이 시스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DB 시스템을 토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DB와 인터페이스를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 즉 위원회 심의 진행시 실무자들이 올린 안전과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DB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해당 영상이나 오디오 혹은 유사 사례 등을 DB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재수준에

대한 논의에서도 DB를 통한 유사사례 검토와 관련 조항별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기존 DB 활용이 가능하면 채널의 차이, 해당 방송사의 심의규정 위반 빈도와 강도, 방송시간대, 그리고 방송사의 적극적 사후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업무 수행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타 콘텐츠 심의기관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방송콘텐츠에 대한 심의결과를 누구나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심의결과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심의 시스템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송심의 DB를 공개하여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제재회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규정의 위반여부, 그리고 제재정도를 결정할 때에 심의 DB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심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콘텐츠 심의 DB를 입력과 활용측면에서 비교분석한 다음 그 함의점을 토대로 방송심의 DB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타 콘텐츠 심의 DB의 경우 정보입력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 게임물의 등급신청 시 게임물의 내용정보가 매우 자세하게 작성, 입력되는데, 이와 같이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 타 기관의 경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

식으로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방송심의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심의 DB도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됨으로써 심의대상자인 방송사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들이 심의결과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광현자, 박천일, 주정민, 이영주, 백인광, *방송심의 DB 구축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 [2] 윤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 발제 논문*, 2011.
- [3] 이영주, 채정화, “지상파방송 심의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고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집행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3호, pp.298-321, 2008.
- [4] 윤석민, 박아현,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 정책”, *방송연구*, 여름호, pp.209-232, 2008.
- [5] 안정민, “성 표현에 대한 방송심의”,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pp.47-91, 2008.
- [6] 손병우, “방송심의의 쟁점과 대안: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1권, pp.59-80, 2010.
- [7] 최우정,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pp.3-36, 2009.
- [8] 윤석민, 박아현,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 정책”, *방송연구*, 여름호, pp.209-232, 2008.
- [9] 최우정,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pp.3-36, 2009.
- [10] 안정민, “성 표현에 대한 방송심의”,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pp.47-91, 2008.

- [11] 이승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체계의 특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pp.83-126, 2009.
- [12] 김상민, “디지털 히스토리: 한국학자료 DB구축의 의의와 한계: 한국관련 서양고서 DB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 제5호, pp.47-72, 2011.
- [13] 장우영, 송경재, 임정빈, “온라인 공공서비스와 정책 거버넌스”,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1호, pp.139-161, 2011.
- [14] 방민식, “우리나라 규제 등록 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41-163, 2007.
- [15] 김민철, 방송통계 DB구축·운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89-91, 2012.
- [16] 유성준, 방송통신 심의정보 DB 구축 고도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 [17] 김찬수, 박태순, “세계 게임 심의제도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6호, pp.56-65, 2006.
- [18] 김찬수, 박태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pp.114-122, 2007.
- [19] 신재민, 곽승진, “디지털콘텐츠 아카이빙 정책수립을 위한 문헌 및 사례 고찰”,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pp.305-330, 2013.

- 1996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관심분야> : 방송 및 뉴미디어 정책, 방송뉴스

주 정 민(Chungmin Joo)

정회원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1998년 12월 :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1993년 10월 : 방송위원회 연구원
- 2002년 8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뉴미디어 기술의 채택 및 확산, 뉴미디어 정책, 뉴미디어 콘텐츠

이 영 주(Yeong Ju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문학사)
- 1998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산업, IT정책, 뉴미디어 콘텐츠

저 자 소 개

박 천 일(Chun Il Park)

정회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1994년 6월 :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박사)